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치적 불안정 분석과 전망

김동석 국립외교원 조교수

주요내용

- ▶ 최근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집권연장을 시도하는 카빌라 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반정부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 카빌라의 정권연장 움직임은 권력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권력 이양 이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함. 야당 세력의 분열과 반목, 국제사회의 압력 미진이 카빌라 정권연장에 기여함.
- ▶ 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반정부 시위가 확대되고 국제사회의 압력이 증가한다면, 카빌라 대통령이 권력을 이양할 가능성이 존재함.

1. 이슈 현황

▶ 최근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집권연장을 시도하는 조셉 카빌라(Joseph Kabila) 현(現) 대통령과 이에 반발하는 반정부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콩고민주공화국의 헌법은 대통령의 삼선(三選)을 금지함에 따라 2006년과 2011년 선거에서 승리해 대통령직을 두 번 수행한 카빌라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인 2016년에 예정된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음.

□ 하지만 카빌라는 대통령 선거를 연기시키는 방식으로 정권연장을 꾀하고 있음.

- 콩고민주공화국의 면적은 서유럽 면적의 2/3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며, 인구는 약 8,200만 명에 육박함.
- 그러나 만성적인 가난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부족하고, 기초 인프라가 부실하여, 전국적인 선거를 조직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2016년 11월 27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그러면서 “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헌법 70조를 들어, 선거 연기를 통한 정권연장을 정당화함.¹⁾

- 야당연합인 라상블레망(Rassemblement)이 중심이 된 반정부 세력은 카빌라 대통령의 정권연장 시도에 반발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임.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
 - 2016년 9월 킨샤사(Kinshasa)에서 카빌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짐. 정부의 무력진압으로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하거나 체포됨.²⁾
 - 같은 해 12월 카빌라가 공식임기 종료 이후에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고, 이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야기함.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40명이 죽고, 460명이 체포됨.³⁾
- 2016년 12월 31일 콩고 가톨릭 주교회의(CENCO)의 중재로 정부와 반정부 세력이 권력공유 협정을 체결함.
 - 카빌라는 삼선을 추구하지 않고, 2017년 말에 선거를 통해 권력을 이양하는데 동의함. 선거 전까지는 야당이 지명한 총리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과도정부의 상징적인 대통령으로 남기로 함. 이와 더불어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는데 동의함.⁴⁾
 - 야당 연합인 라상블레망(Rassemblement)은 과도정부의 총리 지명,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조직, 비폭력적인 권력이양 보장에 동의함.⁵⁾
- 하지만 권력공유 협정 체결 이후 장관, 선거감시위원 임명 등을 놓고 정부와 야당 연합 간 갈등이 악화됨.
 - 올해 3월 CENCO는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고 협정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와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함.
 - CENCO는 이러한 노력의 포기를 선언하면서, 정치 엘리트들이 사리사욕에 집착하여 협정이행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함.
- 올해 4월 카빌라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야당인사 중 한 명인 브루노 치발라(Bruno Tshibala)를 새로운 총리에 임명함.
 - 라상블레망은 이러한 행동이 카빌라가 권력공유 협정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함.

1) Wolters 2016

2) Vlassenroot and Berwouts 2016

3) Reuters 2016

4) Tampa 2017

5) Tampa 2017

2. 원인과 분석

▶ 카빌라의 정권연장 움직임은 권력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권력 이양 이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함. 야당 세력의 분열과 반목, 국제사회의 압력 미진이 카빌라 정권연장에 기여함.

□ 카빌라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는 집권 초기에 비해 많이 하락함. 선거 패배에 대한 우려는 대통령 선거를 계속 연기하도록 이끌.

- 2001년 아버지 로랑 카빌라(Laurent Kabila)의 암살 이후 대통령직을 물려받은 조셉 카빌라는 1998년 이후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낸 내전을 종식시키는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음.
- 하지만 카빌라 정부는 경제발전과 부패근절에 실패함. 특히 최근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악화는 카빌라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킴.
- 정부 수입의 고갈로 공무원, 군인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으며, 전기, 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짐.
- 콩고 프랑(Congolese Franc)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식량, 연료, 공산품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집권 기간 동안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탄압함. 한 예로 야당의 중심인물인 카탕가(Katanga)주지사인 모제 카툼비(Moise Katumbi)는 기소되어, 궐석재판을 통해 3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음.
- 또한 카빌라 정부는 반정부 언론 매체 폐쇄, 반정부 시위 금지와 무력진압 등을 자행하였음.

□ 카빌라의 정권연장 시도는 권력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권력 이양 이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함.

- 즉 카빌라와 그 주변 엘리트들은 야당세력이 집권 할 경우, 새 지도자가 그들을 인권유린, 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처벌할 가능성을 우려함.
- 야당세력의 분열과 국제적 압력의 미진은 카빌라의 장기집권 움직임을 제어하는 데 실패함.
- 야당 지도자들은 권력공유협정 체결 이후 분열되어 있음. 이는 올해 2월 저명한 야당 지도자 에티엔 치세케디 (Etienne Tshisekedi)의 사망에 기인함.
- 치세케디는 모부투 정권 시절부터 반정부운동을 전개함. 2016년 6월 분열되어 있던 야당들을 한데 뭉쳐 라상블레망 (Rassemblement) 창설을 주도하였고, 정부와 권력공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함.
-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몇몇 야당 지도자들은 총리선정, 장관배분 문제 등으로 갈등상태에 있음.
- 특히 치세케디의 아들인 펠릭스 치세케디가 라상블레망의 수장으로 총리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 야당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

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카빌라 대통령에 대한 외부의 압력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2016년 미국과 유럽연합은 선거연기, 반정부시위 탄압 등과 같은 민주주의 훼손 행위를 이유로 콩고민주공화국 정보부, 군대, 경찰 고위관료들에 대해 제재를 단행함.
- 하지만 소수 관료들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꺼리고 있음.
- 프랑스는 냉전 시대부터 구 식민지 아프리카 독재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콩고민주공화국의 정권교체는 이웃 국가인 콩고공화국을 비롯한 구 프랑스 식민지 국가들의 정권교체를 촉진할 수 있음. 프랑스 지도자들은 이를 자국의 정치, 경제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함.
- 미국은 트럼프 취임 이후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있으며,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유엔평화유지군(MONUSCO)의 규모를 감축하기로 결정했음.
- 또한 민간인 학살을 조사하던 유엔 직원에 대한 납치 살해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카빌라 정부에 대한 추가 제재를 거부하고 있음.
- 이웃 국가들도 콩고민주공화국의 정권교체를 반기지 않고 있음. 장기집권을 피하고 있는 르완다, 우간다, 콩고공화국 등의 지도자들은 카빌라의 퇴진이 자신들의 장기집권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함.

3. 전망과 시사점

▶ 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반정부 시위가 확대되고 국제사회의 압력이 증가한다면, 카빌라 대통령이 권력을 이양할 가능성이 존재함.

□ 올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 전망이다.

- 카빌라 대통령은 권력 이양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대통령 선거 연기를 계속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라상블레망 지도자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큼. 카빌라가 야당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반목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됨.
- 국민들의 정부와 야당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시민사회가 카빌라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이에 카빌라정부가 강경진압을 고수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정세불안정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카빌라 대통령이 올해 말 선거를 조직하여, 권력을 이양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반정부 시위의 확대, 국제 사회와 이웃 국가들의 압력 증가에 달려 있음.
- 반정부 시위의 확대는 카빌라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무력진압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증가는 국제사회의 카빌라에 대한 제재 확대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국제사회가 정부와 반정부세력 간 중재에 나서게 되면 카빌라는 어쩔 수 없이 야당 세력에 정치적 양보를 해야 함.
- 이웃 국가들도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치 불안이 자국에 확대되는 것을 경계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 무장단체 활동을 놓고 카빌라와 대립하고 있는 르완다와 오랫동안 카빌라를 지원해온 앙골라는 콩고 난민과 무장단체들의 자국 내 유입에 대한 우려로 카빌라 대통령의 정치적 양보 또는 퇴진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아프리카 연합은 기존의 내정불간섭 원칙을 버리고, 회원국의 인권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따라 콩고의 정치 불안정 악화는 아프리카 연합 차원의 중재 노력이나 혹은 카빌라 정권에 대한 제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EMERiCs**

참고문헌

- Hoebeke, Hans and Phillipe Kadima Cintu. "Hungry for Change: The Economics Underlying DR Congo's Political Crisis." African Arguments. 2016.12.12.
- Hoebeke, Hans and Richard Moncrieff. "What Does Opposition Leader Tshisekedi's Death Mean for DR Congo's Road to Elections?" African Arguments. 2017.2.3.
- Reuters. "Congo Forces Killed 40, Arrested 460 in Kabila Protests - U.N." 2016.12.23.
- Tampa, Vava. "Congo: A Dictator's Dilemma." Al Jazeera. 2017.4.17.
- Vlassenroot, Koen and Kris Berwouts. "Congo's Political Crisis after 19 December.: African Arguments. 2016.12.21.
- Voanews. "US, EU Sanction DRC Officials for Undermining Democracy." 2016.12.12.
- Wolters. "DRC Slip-slides into Electoral Delays." ISS Today. 2016.3.14.
- Wolters. "New Divisions Threaten Stability in the DRC." ISS Today. 2017.4.19.

💡 알립니다

-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